

청년일자리 원스톱 서비스

군산시, 지역주도형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군산시의 전북신화융합원(원장 나석훈)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완료해 사업 참여기업 및 청년근로자들에게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은 행안부 주관 사업으로 기업이 청년들을 정규직으로 신규 채용해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하면, 청년의 인건비 80%(최대 월 180만원)를 2년간 기업에 지원 하는 사업이다.

시는 참여 기업 현장점검과 청년근로자 간담회, 시 사업 참여서류 및 지원금 신청 절차 등이 복잡하고 사업 관련 정보가 실시간으로 전달되지 않아 불편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개

선하기 위해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게 됐다.

이번에 구축된 통합관리시스템은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소개, △참여자 모집안내 및 신청접수, △지원금 지급 신청, △교육·네트워킹 프로그램 신청, △사업참여 의견수렴 등의 기능을 제공해 사업참여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1:1 문의 및 익명계시판 등을 활용해 실시간 정보공유 및 소통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15일부터 내달 20일까지 참여기업 담당자 및 청년 근로자 300여 명을 대상으로 시스템 시범 운영을 실시하고, 이용 불편 사항 및 개선 의견을 수렴해 기능 및 메뉴를 보완한 후 9월

1일부터 정식 운영할 계획이다.

특히 이용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해 시스템 개선 의견을 제출한 이용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군산시 배달의 명수 상품권'을 제공하는 오픈 이벤트도 함께 실시할 예정이다.

나석훈 전북신화융합원장은 "청년의 참여는 접근성 확보가 중요한 만큼 온라인 공간을 통해 수시로 의견 수렴을 받아 지역주도형 일자리 사업이 청년들에게 보다 도움되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유자 일자리정책과장은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은 관내 기업과 청년들이 빠르게 사업 정보를 접하고, 편리하게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인 소통을 통해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가 13일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시민 복리증진 지역경제 발전”

익산시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최

익산시의회(의장 최중오)가 13일 제244회 임시회를 개최하고 오는 7월 22일까지 10일간의 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임시회는 제9대 시의회 개원 이후 첫 의정활동으로, 2022년도 익산시가 상반기에 추진한 주요 업무 추진 상황을 보고 받고 하반기 계획을 들게 된다. 익산시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총 10건의 일반안건을 심사하고, 상임위원회별로 주요 사업 현장을 방문할 예정이다.

의원발의 조례안은 2건으로, 조남석 의원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가스 공급 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익산시 주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다.

5분 자유발언에서는 박종대 의원이 '주민자치센터 편의시설 확충의 필요성', 김경진 의원이 '토양개량제 지원

사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손진영 의원이 '익산시의회 원구성 및 임시회 일정 변경에 따른 문제'에 대해 발언했다.

최중오 의장은 "제9회 의회를 시작하는 첫 회기인 만큼 명확한 의정방향을 설정하여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에 충실하는 한편, 시민 복리증진과 지역경제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건전한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일에 매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제1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 위원을 선임했다. 위원들의 임기는 2022년 7월 13일부터 2023년 6월 30일까지이며, 제245회 임시회에서 2022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의하며 첫 일정을 시작할 계획이다.

【익산=이재춘기자

폐선부지의 화려한 변신 '솜리메타누리길'

익산 인화공원, 야간 조명 설치

익산시는 더위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시는 인화동 전라선 폐선부지를 활용해 조성한 인화공원 '솜리메타누리길'에 야간조명설치를 설치했다고 밝혔다.

이번 야간조명설치는 지난해 산책로 일부 구간(200m)에 시범적으로 설치한 야간조명조명이 시민들의 많은 호응을 받아 추가로 1.1km 구간에 추가로 조명을 설치한 것으로 시민들이 야간에도 안전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전라선 폐선부지를 활용한 길게 뻗은 산책로에 볼드레 조명을 이용해 철길을 연상케 했으며, 단조로운 산책로에 메타세쿼이아를 향한 간접



익산시는 더위로 지친 시민들을 위해 밤에도 안전하게 걸을 수 있는 휴식공간을 제공한다.

조명으로 다채로운 빛을 통해 시민들에게 불거리를 제공한다.

야간조명설치 운영시간은 매일 일몰

시부터 23시까지로 더위로 지친 시민들의 활력 충전 공간이 될 예정이다.

【익산=이재춘기자

익산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현장 점검

익산시는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현장 점검으로 대응에 나선다.

시는 요양병원, 노인요양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직접 방문하여 코로나19 감염병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과 현장 컨설팅을 추진한다.

최근 여름 휴가철 잦은 인구이동과 코로나19 하위 변이바이러스(BA.5)의 급속한 전파로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증가함에 따라 감염 시 중증 위

험도가 높은 감염취약시설을 중심으로 예방에 나선다.

이에 시는 코로나19 대응 절차 마련, 코로나19 격리실 마련 방역 지침 준수 여부, 장소별 환기 설비와 환경 요건 확인, 면회객 방역 준수 사항 외출·외박자 복귀 검사 등 확진자 발생 시 자체 대응 컨설팅을 진행한다.

점검과 현장 컨설팅은 내달 30일까지 실시된다. 7개의 요양시설의 경우

는 전라북도청, 전라북도 감염병관리 지원단 경로장애인인과 요양시설 담당자와 합동으로 방문해 감염병예방관리에 대한 전반적인 점검 및 현장 컨설팅을 실시한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여름철 코로나19 재유행이 예견됨에 따라 감염취약 시설 점검 및 현장 컨설팅으로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을 방지하고자 한다"며 "앞으로 다른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시설 자체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익산=이재춘 기자

익산시, 공익중심 감사 강화... 적극행정 지원

익산시는 공익중심 감사 도입으로 민선 8기 적극행정을 지원한다.

시는 적극행정 활성화, 소극적 행정 행위 근절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민선 8기 감사 운영 방향을 결정하고, 전 부서에 통보했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시민을 위한 공익과 직결되는 사업에 대해 합법성 감사의 한계에서 탈피해 효율성과 효과성 검토를 기반으로 하는 성과 위주의 감사를 도입해 실시하고, 적극 행정 면책을 활성화하는 등 시정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행정을 추진하도록 지원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를 구체화하기 위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최초로 합목적성 감사를 추진하기로 결정하고, 공익중심의 합목적

성 감사, 적극행정 지원 시민과 소통하는 감사, 공직기강 확립 등 4대 추진 전략과 9개의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적극 실행에 나설 계획이다.

정현을 시장은 "합목적성 감사의 도입으로 민선 8기에는 무사안일, 단순법 검토 위주의 업무처리는 지양하고,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민생현안을 근본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전라북도 최초로 기초 자치단체에서는 전국 세 번째로 독립 합의제 의결기구인 감사위원회를 출범했으며, 국민권익위원회 주관 청렴도 측정 결과 전국 시단위 최고 등급인 2등급을 달성한 바 있다.

【익산=이재춘기자

지역 소식통

군산시, 고액채납자 관리 강제제도 채납액 징수

군산시는 7월부터 올해말까지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를 위해 조정금, 과태료, 과징금, 개발부담금 및 이행강제금 등 500만원 이상 채납자 424명을(채납액 69억원) 대상으로 '고액채납자 집중 관리'를 시행한다.

이에 따라 고액·상습 채납자에 대해 현지 확인을 통한 채납 사유 및 재산상태, 수입원 등을 세밀히 분석 후 채납자 소유의 부동산, 차량, 예금, 신용카드매출내역 등 금융재산 등 압류처분으로 맞춤형 채납처분을 실시할 예정이다. 더불어, 사망이나 폐업 등 담보력이 없고 징수가 불가능한 경우 정리보류(결손) 처분을 통해 채납 규모도 줄여나갈 예정이다.

시는 지난 6월까지 세외수입 채납액 징수전담반의 활약으로 과년도 세외수입 이월채납액 25억원을 징수하는 실적을 거뒀다. 【군산=김판곤 기자

익산시보건소, 집중방역 기간 운영 해충 박멸 나서

익산시는 앞으로 두 달간을 하절기 집중방역기간 운영으로 해충 박멸에 나선다.

보건소는 집중방역기간동안 주 2~3회 다중이용시설과 민원다발지역을 대상으로 위생해충 방역작업을 본격 가능한다고 밝혔다.

일본뇌염, 말라리아, 지카바이러스(Zika virus) 등 여러 감염병의 매개체가 되는 모기는 날씨가 선선해지는 저녁부터 주로 활동하는 야행성이기 때문에 야간 방역 활동으로 더욱 효과적인 방역이 기대된다.

이외에도 위생해충 방제를 위해 다중이용시설에 설치된 해충 유인 살충기 11개소 64대, 진드기매개감염병 예방을 위해 6개에 설치된 진드기 기피제 자동분사기를 4월 초부터 가동 중이다.

이진윤 보건소장은 "야행성인 모기가 활동하는 시간대에 집중방역을 실시해 모기 개체수를 줄여 시민들의 저녁에 쾌적한 야외활동과 편안한 수면 활동을 보장하겠다"고 밝혔다.

【익산=이재춘기자

전주매일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

착한신고

112

"신고하는 당신이 영웅입니다"

아동학대 범죄를 알거나 의심만 되어도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지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나 학대행위자의 정보를 파악하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며, 가능한 많은 정보를 제공하도록 한다.

전화: 국번없이 112
방문: 관할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

아동학대 행동적징후

- 어른과의 접촉회피
-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냄
- 공격적이거나 위축된 극단적 행동
- 부모에 대한 두려움
-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함
- 위험에 대한 지속적 경계